

치주질환 · 구강암의 주요 원인

12. 치주질환(풍치)이 잘 생긴다.

답 배는 치주질환(풍치, 잇몸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치주질환으로 진행되기 전인 치은염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구강 상태가 나빠 잇몸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존재하게 되어, 잇몸에서 피가 잘 나는 현상이 빈번하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구강 상태가 나빠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잇몸을 가진 사람들보다 오히려 잇몸에서 피가 잘 나지 않는다.

이는 담배의 니코틴 성분이 강한 혈관 수축 작용을 하여 잇몸에 피가 잘 순환하지 못하게 하고 담배의 유독 물질에 대한 해독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면 치주질환의 발생이 그만큼 빨라진다. 치주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처음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치주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 염증이 진행되지 않는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였다고 해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재발될 위험이 높다.

여기에 담배까지 피운다면 그 치료는 무너진 공든 탑이 될 것이다.

13. 구강암까지 일으킨다.

구강에 생기는 백반증이라고 하는 전암병소는 즉, 아직 암은 아니지만 어떤 자극이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이 병이 암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병의 발생이 담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담배를 자주, 많이 그리고 오래 피울수록 잘 발생한다. 이런 종류의 전암병소가 암으로 변하는 경우는 흡연, 지속적인 자극과 과도한 알코올을 접할 때 잘 나타난다.

특히 술과 담배를 함께 하는 경우는 암으로 변할 위험이 매우 높다. 담배와 술을 함께 하는 경우 담배와 술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구강암이 발생할 확률이 6배에서 15배나 된다.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1988년 미국에서 발생한 구강암과 목에 생기는 인두암 환자 중 4분의 3이 술과 담배를 함께 하고 있었다고 한다.

14. 방광암을 발생시킨다.

방광암과 흡연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50년에 발표된 한 의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발병률이 4배에 이른다고 했었고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대개 남자 환자의 50%, 여자 환자의 33%가 흡연에 의해 방광암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광암의 발생 빈도는 흡연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하루에 몇 갑을 피우는가, 얼마나 깊이 연기를 들이마시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하루 반 갑 내지 두 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2.3배의 위험이 있으며, 폐 속 깊숙이까지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사람은 약 7배까지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한다.

방광암과 흡연과의 관계는 실험에 의해서도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방광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 중 제일 먼저 밝혀진 것은 2-나프틸라민이라는 물질이다. 그리고 1977년 윈터라는 사람이 하루 2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실험해 본 결과, 2년만에 3mg상당의 2-나프틸라민이 체내에 흡수되었다고 한다.

이 양은 우리 몸에 방광암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이다. 또 담배연기 속의 니트로소아민도 폐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기도 하고 다시 콩팥을 통해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 이 물질도 역시 배출되는 과정에서 방광암을 유발시키는 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㉞**